

야만과 비극 속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팔레스타인 연대의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3년 10월 11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국내 첫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주말마다 서울 도심(광화문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 한국 시민사회 단체 등이 함께하는 연대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만들어졌습니다.

‘팔연사’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수원, 원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리 집회, 중고등학교와 대학 강연회, 지역과 캠퍼스 캠페인, 난민 구호를 위한 모금, 포럼과 영화제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진실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재한 팔레스타인인들, 아랍인들, 무슬림 커뮤니티, 다양한 국적의 대학생, 동아리 등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의 호소

2025년 올해도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1월 19일(일요일)에는 서울뿐 아니라 미국 전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무기 지원 등을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에 항의하는 행동이 벌어집니다.



재한 팔레스타인인 유학생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인종 학살에 맞서서 그리고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과 그들을 지원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한 목소리로 힘껏 외칩시다!”

여러분, 이 진심어린 요청에 관심과 참가로 응답해 주십시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역사적 팔레스타인 영토 모두가 해방되기를 바라는 국제 연대 운동의 구호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팔레스타인 연대의 목소리를 모읍시다!

2025년 1월 11일 발행

1.19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

일시: 2025년 1월 19일(일) 오후 2시

장소: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참가하고 사회자와 연설자로 나섭니다.
- 영어, 아랍어, 벵골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통·번역 제공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68차 집회·행진

일시: 1월 12일(일)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교보문고 앞

※ 아랍어, 영어, 한국어 통역 제공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서울 집회와 여러 지역 집회, 다양한 활동 소식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도 팔로우하세요!

웹사이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